

# '吃不了'의 사용 환경과 의미 고찰

김민선

제주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

'吃不了'는 '了(liǎo)'가 '完', '結束'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작 미완료'로 쓰이는 경우와 '了(liǎo)'가 '완료'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不了' 자체로 '동작 실행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사용 환경과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동작 미완료'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다시 '양적 과다로 인한 동작 미완료'와 '심리적·신체적 요인으로 인한 동작 미완료'로 나눌 수 있다. '양적 과다로 인한 동작 미완료'는 '음식물이나 임무·부담 등이 너무 많은 것'이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며, '다 먹을 수 없다'로 해석할 수 있다. '吃不了'의 앞이나 뒤에 '这么多, 这么多' 등 '많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는 경우가 많으며, '吃不了'의 앞에 '一時, 暫時'와 같은 시간 표현을 두어 '(일정 시간 내에 다 먹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표현하기도 한다. '심리적·신체적 요인으로 인한 동작 미완료'는 동작 행위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나 선호도, 혹은 섭취량 등의 제약이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며, '얼마 먹지 못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吃不了'의 뒤에 '很多, 多少'와 같은 추상적인 양을 제시하거나 수량구를 이용한 소량의 표현을 두어 '동작 행위자의 섭취량이 적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동작 실행의 불가능' 역시 사용 환경에 따라 '환경적 제약'과 '주관적 제약'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적 제약'은 행위 대상(음식물이나 임무 등)의 상태나 시간적 제약, 음식이나 임무 등을 제공받을 기회의 부재 등 외부 환경에 의한 제약을 말하며, '주관적 제약'은 동작 행위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나 능력의 부족 등 개인적 상황에 의한 제약을 말한다. 이 경우는 모두 '먹을 수 없다' 혹은 '먹지 못하다'로 해석한다.

# ‘吃不了’의 사용 환경과 의미 고찰

1. 들어가는 말
2. ‘吃不了’의 位相과 ‘吃不了’ 구조
3. ‘吃不了’의 사용 환경과 의미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고후원<sup>1)</sup>은 가능보어를 ‘가능, 불가능을 나타내는 것과 더불어 이유를 포함해서 말할 수 있는 보어에 의한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예 중 ‘吃得了 | 吃不了’를 들면서, ‘得了’와 ‘不了’가 ‘양적인 처치 능력의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사전에서도 ‘吃不了’를 ‘(양이 많아서) 다 먹을 수 없다.’<sup>2)</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吃不了’를 사용한 상당수의 문장이 ‘양적인 처치 능력의 여부’를 나타내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또 다른 뜻을 나타낼 수 있다.

① 沒必要点这么多菜, 吃不了。

이렇게 많은 음식을 주문할 필요 없다. 다 먹지 못할 것이다.

- 
- 1) 고후원, 「현대중국어의 「動+補」관계 I; 현행 대학교재에서 나타난 문장(어문)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第17輯, 1990, 271쪽
  - 2)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2000, 321쪽.

② 我老了，吃不了多少，昨天晚上打的飯我剩下一半，今天够吃了。

나는 늙어서 얼마 먹지도 못한다. 어제 저녁에 푼 밥의 반을 남겨 두어, 오늘 먹기에 충분하다.

③ 沒有煤，吃不了飯，沒有煤，發不了電，也生產不了。

석탄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도, 전기를 일으킬 수도, 생산을 할 수도 없다.

예문 ①과 ②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적인 처치 능력의 여부'에 해당되지만, 예문 ③의 경우는 '양적인 의미보다는 '吃(먹다)'라는 동작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음으로 보아야 한다. 또 예문 ①과 ②의 경우도, '다 먹을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예문 ①은 '음식물의 양이 많다'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예문 ②는 '동작 행위자의 섭취량 혹은 신체적 조건의 한계' 즉, '주관적 조건의 제약'으로 인해 '얼마 먹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일한 '吃不了'라도 어떠한 언어 환경에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吃不了'가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吃不了'의 의미 항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각각의 사용 환경에 따라 가지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이 '吃不了'를 이용해 문장을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방법이 다른 '得/不了(liǎo)'형식의 문장이 가지는 특징을 살피는 데 하나의 기초자료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필자는 기존 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吃不了'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吃不了'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각각의 언어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이해

하기 위해 우선 ‘吃不了’가 사용된 예문만을 골라 ‘吃不完(양이 많아서 다 먹을 수 없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동사의 가능 여부만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吃不了’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조사한다.

이 글에 인용한 例文은 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CCL’로 약칭)의 전자코퍼스(語料庫)에서 선택하였음을 밝힌다.

## 2. ‘吃不了’의 位相과 ‘吃不了’ 구조

### 1) ‘吃不了’의 位相

‘吃不了’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어와 가능보어는 물론 ‘不了’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邢福義<sup>3)</sup>는 보어와 가능보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보어란 술어성 구조에서 중심어 뒤에 위치하여 보충 작용을 하는 성분이다. 예를 들면, 推得倒 | 紅得發紫 | 走進來 | 痛苦万分 등이 있다. 중심어와 보어 사이에 때때로 “得(de)”가 출현하여 “心得補” 형식을 이루는데, 이는 흔히 보어의 語義 유형 및 보어 구조 상황과 관계된다.

語義와 어구의 성질에 근거하여, 보어는 대략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狀況類補語 - 중심어의 行爲性狀(행위 및 성질과 형상)과 관련된 상황을 나타내며, 結果補語, 趨向補語, 可能補語, 程度補語, 判斷補語가 이에 해당된다. [2] 物體類補語 - 중심어의 行爲性狀과 관련된 시간, 장소, 수량, 대상, 방식 등을 나타내며, 時地補語, 數量補語, 關係補語가 이에 해당된다.

3) 邢福義, 『漢語語法三百問』, 商務印書館, 2004, 46-48쪽.

보어는 일반적으로 동사, 형용사와 관계가 있으므로 동사, 형용사의 보충성분으로 정의된다.

가능보어는 狀況類補語로서, 행위나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발전 혹은 변화를 나타낸다. 예컨대 X와 Y를 각각 중심어와 보어라고 한다면, XY의 語義 관계는 “能XY” 혹은 “不能XY”가 된다. 예: 听得懂 - 听不懂 | 寫得完 - 寫不完 | 提得起來 - 提不起來.

이러한 보어는 결과보어, 추향보어 사이에서 조건부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 즉, “得”를 사용하지 않는 결과보어와 추향보어는 “得”를 삽입함으로써 가능보어로 전환된다. 예: 推倒(結果補語) → 推得倒(可能補語) | 平靜下來(趨向補語) → 平靜得下來(可能補語).

房玉清<sup>4)</sup> 역시 가능보어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보어와 추향보어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가능보어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든 결과보어와 추향보어가 가능보어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語義면에서 아예 조합될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急哭(다급한 나머지 울어버리다.)”, “哭瞎(울다가 눈이 멀다.)” 등은 동작의 결과가 능력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記錯(잘못 기억하다.)”, “燒傷(화상을 입다.)” 등도 역시 그러하다. 어떠한 동사는 가능보어를 취할 수 있는 폭이 넓지만, 어떠한 동사는 그 폭이 좁다. 이 역시 동사의 語義와 관계된다. 예컨대 “吃(먹다)”인 경우에는 “吃不着, 吃不到, 吃不成, 吃不好, 吃不掉, 吃不够, 吃不上, 吃不下, 吃不起, 吃不出, 吃不開”등으로 말할 수 있지만, “眨((눈을) 깜빡거리다)”와 같은 동작인 경우에는 사람이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가능보어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는 또한 가능보어의 특징을 설명하며, 의미가 허화된 동사 “得(dé)”와 “了(liǎo)”의 쓰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房玉清, 『實用漢語語法(修訂本)』, 北京大學出版社, 2006, 152-156쪽.

의미가 허화된 두 개의 동사 “得(dé)”와 “了(liǎo)”는 현대중국어에서 결과보어로 사용되는 예가 드물다. 일반적으로 가능보어로만 사용되며, 그 빈도가 매우 높다.

“得(dé)”는 여러 의미를 가진 허사로서 보어로 사용될 때는 “완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能够할 수 있다”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得”나 “不得”를 동사 뒤에 놓아 가능보어로 사용한다.

“看得”, “去得”, “吃得”는 각각 “能看”, “能去”, “能吃”의 의미에 해당하고, “看不得”, “去不得”, “吃不得”의 의미는 “不能看”, “不能去”, “不能吃”에 해당한다.

“得”, “不得”를 보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得” 앞에는 단음절 동사만이 위치하지만, “不得”의 앞에는 이음절 동사도 올 수 있다.

“了(liǎo)” 역시 多義를 가진 허사인데, “了(liǎo)”는 “得/不”와 함께 가능보어의 형식을 완성하고, 실현 가능성이나 능력 여부를 표시한다.

“辦得了”, “走得了”, “決定得了”의 의미는 “能辦”, “能走”, “能決定”에 해당하고, “辦不了”, “走不了”, “決定不了”의 의미는 “不能辦”, “不能走”, “不能決定”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능보어는 일반적인 가능보어와 그 형식은 유사하지만, 나타내는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비교를 해보자면:

A	B
做得了 = 能做	做得完 = 能做完
做不了 = 不能做	做不完 = 不能做完

A식의 의미는 “能做(할 수 있다)”, “不能做(할 수 없다)”이지만, B식의 의미는 “能做完(일을) 마칠 수 있다”, “不能做完(일을) 마칠 수 없다”이다. 이것으로 동사 “了(liǎo)”가 “得/不”와 함께 可能/不可能만을 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劉月華<sup>5)</sup>는 이들 가능보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A類 가능보어 : “得/不 + 결과보어/추향보어”로 구성된 가능보어
- B類 가능보어 : “得/不 + 了(liǎo)”로 구성된 가능보어
- C類 가능보어 : “得/不得”로 구성된 가능보어

이중 B類 가능보어에 대해 동사 '吃不了'를 사용한 예문을 들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了(liǎo)'가 가진 본래의 뜻은 '完', '結束'이며, '得/不+了(liǎo)'로 구성된 가능보어가 어떠한 동사 뒤에 쓰이면 '了(liǎo)'는 때로 '完', '掉' 등과 같은 결과의 의미를 나타낸다.

這個西瓜太大，咱們倆吃不了。(吃不完)  
 이 수박은 너무 커서 우리 둘이 다 먹을 수 없다.  
 ( → 이 수박을 먹으려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겠다)

이러한 종류의 '得/不了(liǎo)'는 'A類 가능보어'가 나타내는 뜻과 같기 때문에 마땅히 A類에 속해야 한다. '得/不+了(liǎo)'로 구성된 'B類 가능보어' '了(liǎo)'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전체의 '得/不了(liǎo)'가 “주·객관적 조건(어떤 동작 또는 변화의 실현에 대한)의 허용 여부”를 나타낸다.

본고는 '吃不了'의 의미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유월화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吃不了'의 '了(liǎo)'가 '完', '結束'를 나타내는 경우 즉,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와 '了(liǎo)'가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전체의 '不了' 형식이 '吃(먹다)'란 '동작 실행의 불가능'만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예문을 정리하고, 어떠한 전체 조건 하에 각각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5) 劉月華,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2007, 581-594쪽.

살펴본다.

## 2) '吃不了' 구조

'吃不了'의 구조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V得/不C'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 '得'와 '不'의 귀속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房玉清<sup>6)</sup>은 '听得懂'과 '听不懂'의 述補關係를 각각 '听得|懂'과 '听|不懂'으로 나누고 있지만, 劉月華<sup>7)</sup>는 "得/不"에 결과보어나 추향보어를 덧붙여 가능보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함으로써 述補關係를 'V|得C, V|不C'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이우철<sup>8)</sup>에 따르면, '安得|上, 安不|上'과 같이 述補關係를 'V得|C, V不|C'로 보는 견해(李德津·程美珍)도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는 모두 이분법에 따른 것인데, 이와 다르게 朱德熙<sup>9)</sup>는 '看得見'을 '看|得|見'으로, '听得出來'를 '听|得|出來'로 삼분하고, "가능성을 나타내는 述補구조 속의 '得'는 독립된 助詞로서 술어와 보어 사이에 위치하며, 앞이나 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삼분법적 분석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에 대한 이우철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가능보어(V得/不C)는 일반 보어들과는 다르게 雙層적 구조를 보이는데, 'V'와 'C'가 먼저 직접성분으로 조합된 후 다시 "VC"가 "得/不"와 직접성분관계를 가진다. 이때 "VC"는 중심성분이고, "得"와 "不"는 부가성분이다. 둘째, 다른 보어는 그 명칭만으로도 무엇을 보충 설명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보충 설명하는 부분과 보충

6) 房玉清, 『實用漢語語法(修訂本)』, 北京大學出版社, 2006, 161쪽.

7) 劉月華, 『可能補語用法的研究』, 『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 312쪽.

8) 이우철, 『현대중국어 "V得/不C"구조 연구』, 『中語中文學』第27集, 2000, 67-70쪽.

9) 朱德熙,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2007, 125-126쪽.



설명되어지는 부분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만, “V得/不C”구조는 어느 성분이 가능보어인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의 차이가 생긴 것이다.

石毓智<sup>10)</sup>의 경우, 'V得/不C' 형식을 '情態式'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이우철과는 다른 형태의 조합순서를 언급하였다. 그는 가능식의 성립이 3개 語素의 융합과 관계되며, 雙音化가 情態式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情態式의 긍정형과 부정형은 각각 두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쳤고, 각 단계마다 오직 두 성분(語素)간의 융합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긍정형과 부정형 모두 첫 번째 발전 단계에서 두 개의 단음절로 된 語素가 하나의 어법 단위로 융합을 이룬 후, 다시 제 3의 語素와 융합되었는데, 13세기에 “得”가 앞에 있는 동사와 우선적으로 융합되던 상황과는 다르게, “不”는 언제나 R<sup>11)</sup>과 함께 출현하다가 하나의 雙音單位로 굳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는 'VC'가 “V得/不C”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우철<sup>12)</sup>은 '고대한어에는 없던, 혹은 당시에는 말하지 않던 'VC'현상들이 '得/不'라는 매개체의 중개로 “V得/不C”구조가 점점 가능표시 어법형태로 고정되면서 생겨난 언어 현상'이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得/不”는 주로 “V라는 동작 행위가 C라는 결과 혹은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어법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吃不了'는 언어 환경에 따라 동작 행위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동작 미완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了(liǎo)'가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不了' 자체로 불가능을 의미하는 '동작 실행의 불가능'을

10) 石毓智, 「現代漢語語法系統的的建立－動補結構的產生及其影響」,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5, 84-87쪽.

11) 본고에서는 C에 해당한다.

12) 이우철, 「현대중국어 “V得/不C”구조 연구」, 『中語中文學』第27集, 2000, 66쪽.

표현하기도 한다. '동작 미완료'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了(liǎo)' 자체가 독립적인 성분, 즉 '完·結束'라는 '결과'의 표시이므로, '吃|不|了'로 삼분할 수 있겠지만, '동작 실행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의 '了(liǎo)'와 같이 독립적인 의미나 역할을 가지지 못하는 성분을 '결과보어·방향보어'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삼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石毓智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능표시의 매개체인 '不'와 '了'가 우선 조합되어 불가능을 표시하는 하나의 어법단위를 이루고, 이 '不了'가 다시 동사 '吃'와 융합하여 '吃的 불가능'을 표시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동작 실행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의 '吃不了'를 '吃|不|了'로 삼분하거나, '吃不|了'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吃|不了'로 나누는 것이 비교적 타당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吃不了'라는 하나의 대상을 의미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데, 만약 石毓智의 설명대로 가능표시의 '不'가 언제나 C와 먼저 조합이 된 후, 중심 술어와 제 2단계 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A類 가능보어도 '吃|不了'로 구분할 수 있다.

### 3. '吃不了'의 사용 환경과 의미

현재 『現代漢語詞典』을 비롯한 다수의 사전에서는 '吃不了'에 대해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는 사전이라 하더라도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되어 있을 뿐이어서 다양한 예문을 해석할 때 앞뒤 문맥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吃不了'가 나타내는 의미를 추측해야 하는 상황이다. 필자는 십여 권의 사전 중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는 주2)를 포함한 단 세 권의 사전에서 '吃不了'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사전적

의미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임무나 부담 과중으로 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가리킨다.<sup>13)</sup>

본래 의미는 '음식 등이 많아 다 먹지 못함'을 이르지만, 임무가 과하여 완성할 힘이 없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지식이 너무 많아 전부 소화 혹은 이해하기 어려움을 비유하여 나타내기도 한다.<sup>14)</sup>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설명 모두 동사의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경우의 '吃不了'는 배제하고 있으며, 그 사용 범위도 음식물이나 임무, 지식 등으로 아주 제한적이다. 평소 필자는 '吃不了'의 중심어가 동사 '吃'임을 감안할 때 '吃不了'의 쓰임이 지나치게 축소 설명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사전 상의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吃不了'의 의미를 동사 '吃'에서 추측해 볼 수 있었으며, '了(liǎo)'의 쓰임 역시 '吃不了'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사전에 명시된 설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문인 경우 동사 '吃'의 의미 항목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 추측해 보는 방식으로 동사구 '吃不了'의 의미와 사용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필자가 CCL 검색을 통해 '吃不了'를 사용하고 있는 예문을 조사한 결과, 중복된 예문을 제외한 총 268개 예문 중, '吃不了兜着走(다 먹을 수 없어 싸 가지고 가다.)' 63개, '吃不了苦(고생을 견디지 못하다.)' 45개, '吃不了亏(손해볼 리 없다.)' 28개가 검색되었다. 이와 같이 자주 쓰이는 '吃不了' 구문에 대해서는 본 장

13) 亢世勇, 劉海潤, 『新詞語大詞典』: 「指任務, 負擔過重, 而生產能力相對不足。」,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3, 148-149쪽.

14) 曲偉, 韓明安, 『當代漢語新詞詞典』: 「本義是事物多, 吃不完。喻指任務過多, 無力完成;或需要接受的知識過多, 難以完全消化、理解。」,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4, 86쪽.

의 마지막에 따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자주 쓰이는 구문 외의 문장들을 대상으로 '吃不了'가 사용되는 환경을 알아보고, '吃不了'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필자는 '吃不了'가 '吃不完'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동작 미완료'로, 동사의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경우를 '동작 실행의 불가능'으로 표시하고, 어떠한 언어 환경에서 각각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 1) 동작 미완료

'了(liǎo)'가 '完畢, 結束'의 의미를 가질 때, '吃不了'는 "吃(먹다)라는 동작을 완성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데, 전제 조건에 따라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 양적 과다로 인한 동작 미완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吃不了'의 예는 '음식물의 양이 많아서 전부 먹어치울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④ 讓他來分点蛋去吧, 我吃不了這許多。  
그가 와서 계란을 좀 나눠가도록 해.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다 먹을 수 없어.
- ⑤ 姑母, 我吃不了這么多, 分給你一些。  
고모,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다 먹을 수 없어요. 좀 나눠드릴게요.
- ⑥ 黃慶元媽媽一個人也吃不了那末些東西!  
黃慶元의 어머니 혼자서는 그것들을 다 먹지 못한다.
- ⑦ 血氣方剛的大小伙子大都吃不了這碗飯。  
혈기왕성한 사내들 대부분이 이 밥을 다 먹지 못한다.

⑧ 如果捕到的魚蝦暫時吃不了，還可在皮囊中貯藏。

만약 잡은 생선과 새우를 조만간 다 먹지 못하면, 가죽 주머니에 저장해도 된다.

보통 많은 양의 음식물이 실제로 화자의 눈앞에 있거나, 화자가 이미 그 양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吃不了'의 앞이나 뒤에 '這麼多, 這許多' 등과 같은 '많다'라는 표현을 대동하기도 하고, '這碗飯'과 같이 구체적인 양을 제시하며, 그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예문 ⑧과 같이 '暫時'나 '一時'와 같은 시간 표현을 놓음으로써 '일정 시간 내에 섭취할 수 있는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도 '많다'라는 범위 안에 포함하여 '다 먹을 수 없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吃不了'는 추상적인 대상을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는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⑨ 我們公司施工任務已由過去的吃不了到吃不飽。

우리 회사의 시공업무는 이미 과거의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능력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었다.

⑩ 主要是在公路、航空運輸的激烈競爭下，鐵路的客貨運輸已經由“吃不了”變為“吃不飽”。

무엇보다도 고속도로와 항공운송의 치열한 경쟁으로 철도의 여객과 화물 운송이 '감당하기 벅차던 지경'에서 '운송 여력이 남아도는 상태'로 바뀌었다.

예문 ⑨와 ⑩은 모두 임무나 부담 과중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보통 '吃不飽'와 같은 상대적인 표현과 짝을 이루어 상황에 변화가 생겼음을 나타내는 문장에 자주 등장한

다. 음식물이 동작 행위의 대상일 때 일반적으로 '吃不了'의 앞이나 뒤에 '많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함께 출현하는 것과 달리 추상적인 대상을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에는 '많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수반하지 않고 '吃不飽' 등의 상대적인 표현과 연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임무나 부담이 많았음'을 표현하는 문장을 자주 볼 수 있었다.

(2) 심리적·신체적 요인으로 인한 동작 미완료

'동작 미완료'에 해당하지만 위의 경우와는 달리 '吃不了'가 '얼마 먹지 못함'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예문은 아래와 같다.

⑪ 孫茂芳吃飯時總唉聲嘆氣，吃不了兩口就放下筷子。

孫茂芳은 식사 시간에 계속 탄식을 하며 몇 술도 채 먹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⑫ 老人家呢要看的是人，你給他山珍海味吃，他也吃不了几口！

그 어르신은 사람을 보려는 것이다. 네가 그 분께 산해진미를 드려도 몇 술 잡수시지도 못 하신다.

⑬ 孩子哪儿也不去，你就讓他喂几个鸽子玩玩吧。這吃不了多少稻子。

아이는 어디에도 가지 않으니 그 아이에게 비둘기 먹이를 주면서 놀게 해라. 벼를 먹어봐야 얼마 먹지도 못할 것이다.

⑭ 若是一家的人太少，吃不了一只羊羔，本人就要和他隔壁的鄰舍共取一只。

만약 한 가구의 식솔이 너무 적어,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지 못하면, 나는 그의 이웃과 한 마리를 나누어 취할 것이다.

위의 예문들은 '吃不了'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이유가 '음식물의 양이 많기'때문이 아닌 '심리 상태(예문 ⑪) 섭취량의 한계(예문 ⑫, ⑬, ⑭) 등 동작 행위자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경우이다. 보통 뒤에 '很多, 多少' 등 막연한 수량의 표현을 수반하고 있지만, '几口, 一只羊羔' 등과 같이 '적음'을 알 수 있는 수량구를 돕으로써 '섭취량이 적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吃不完'의 의미를 나타내는 '吃不了'라 하더라도 '심리적·신체적 요인으로 인한 동작 미완료'의 경우에는 외부 요인이 아닌 동작 행위자 본인에게 그 원인이 있는 주관적 조건의 제약이 '吃不了'라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음식물의 양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예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동작 실행의 불가능

본 절에서는 '不了(liǎo)'가 동작 실행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의 예문을 통해 '吃不了'의 쓰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때의 '吃不了'는 '먹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함을 나타내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환경적 제약

- ⑮ 案發時，公安人員搜查王國秋家，發現有許多吃不了的魷魚干霉爛在陽台上。

사건을 조사하며, 공안은 王國秋의 집을 수색하였고, 먹지 못하게 된 많은 양의 마른 오징어가 베란다에서 썩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⑯ 心急吃不了熱豆腐，一切好奇都只有延續到開幕。

마음이 급해서 뜨거운 두부를 먹을 수 없는 법이니, 모든 호기심은 막이 열릴 때까지 미루어 두어야 한다.

⑰ 好啊, 那就嘗一嘗吧, 不過小孩子吃不了。

좋아요, 그럼 맛을 좀 보세요. 하지만 어린이는 먹을 수 없어요.

예문 ⑮와 ⑯은 외적 요인 즉, 동작 실행의 대상이 원인이 되어 '먹는 동작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예문 ⑮는 음식물이 부패하였기 때문이고, 예문 ⑯은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문장의 내용 자체만 보면 두부가 뜨겁기 때문이다. 예문 ⑰인 경우, '小孩子'라는 제한 대상을 넣음으로써 맛보려는 음식물이 어린 아이가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모두 '먹을 수 없다' 혹은 '먹지 못하다'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들이며, 문장 안에 직·간접적으로 음식물의 상태에 대해 제시하여 먹을 수 없는 원인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⑱ 我吃了早飯到他那里, 中午還吃不了飯, 却又等不及吃晚飯就得回連, 所以只勉强啃了几口饅頭。

나는 아침을 먹자마자 그에게 갔고, 점심은 채 먹지도 못한 마당에,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돌아와야 했다. 때문에 겨우 만두 몇 개만 뜯어먹었을 뿐이다.

⑲ 他很担心自己從此吃不了好東西。

그는 앞으로 좋은 음식(/것)을 먹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다.

⑳ 前些年連人也吃不了这么好。

지난 몇 년 간 사람조차도 이렇게 좋은 것을 먹지 못했다.

㉑ 限制少吃食物, 所以他也不在意地接受這份懲罰, 他知道自己今晚再吃不了東西。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자 그도 대수롭지 않게 그 벌을 받아



들었다. 그는 오늘 저녁에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의 예문들은 주어진 환경의 제약이 원인이 되어 먹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문 ⑱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먹지 못한 경우이고, 예문 ⑲와 ⑳은 기회의 부재로 인해 먹지 못하는 경우이며, 예문 ㉑은 타인에 의해 먹는 행위를 금지당한 경우로, 이 경우에도 역시 '먹을 수 없다' 혹은 '먹지 못하다'로 해석한다.

(2) 주관적 제약

㉒ 口腔潰瘍，牙齦發炎，現在所有牙都活動了。有時疼得吃不了飯。

구강궤양, 치아 염증으로 현재 모든 치아가 흔들린다. 간혹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도 있다.

㉓ 我年歲大了，毛病多了，吃不了國航精心準備的月餅，但你們的心意我領了。

나는 나이가 들어 병도 많아져서 중국국제항공에서 정성껏 마련한 월병을 먹을 수 없지만, 당신들의 마음만은 잘 받겠습니다.

㉔ 大娘，牛吃不了日頭，彭書記要真是您的兒子，他早晚會認你這個娘的！

큰 어머니, 소가 해를 먹을 수 없듯이彭서기가 정말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는 언젠가 당신을 알아볼 거예요.

㉕ 與其做一個張牙舞爪的要吃人又吃不了的假虎，不如干脆做一只灵敏的猴子。

사람을 잡아먹으려 사납게 날뛰어도 잡아먹지 못하는 가짜 호랑이가 되느니 영민한 원숭이가 되는 것이 낫다.

㉖ 不怕！她吃不了誰！也不只告過咱們一次了，也沒有見她拔過

誰一根毛!

겁나지 않아! 그녀는 누구도 해할 수 없어! 기껏해야 신고  
나 한 번 할 뿐, 그녀가 남의 털 한 올 뽑는 것도 본 적이  
없어!

위의 예문들은 먹는 행위가 불가능한 원인이 동작 행위자에게  
있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예문 ㉒와 ㉓은 병증이나 노환 등 동  
작 행위자의 신체적·심리적 제약으로 인해 '먹지 못하는' 혹은  
'먹으면 곤란한' 경우이고, 예문 ㉔, ㉕, ㉖은 능력 부족이 원인  
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먹는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사를  
목적어로 취함으로써, 일어날 리 없는 불가능한 일을 표현한 예  
이다. 소는 해를 먹을 수 없고(예문 ㉔), 가짜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을 능력(혹은 가능성)이 없고(예문 ㉕), 그녀는 다른 이에  
게 해를 입힐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예문 ㉖) '먹지 못하  
는' 경우로, 이러한 문장들은 비유적인 표현에 주로 사용되고 있  
다.

3) 예외적인 경우와 常用 '吃不了'구문

필자는 예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제시한 예문들과는 달  
리 '吃'라는 동작이 실행된 것은 물론 '吃完(다 먹다)'의 결과까지  
얻고 있으면서도 문장에 '吃不了'를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㉗ 接下來的几天里，啣啣在周圍偶爾能够找到一点奶酪，但都是  
吃不了多久。

이어지는 며칠 동안, 啣啣는 주변에서 우연히 치즈를 조금  
발견했지만, 얼마 먹지 못했다.

㉘ 這種青春飯也吃不了几年，都想嫁个合适的有錢人。

이런 청춘기 직업은 몇 년 해먹지 못하고 모두가 적당한 부자에게 시집가기를 원한다.

위의 예문들은 '먹을 수는 있으나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오래 지탱할 수 없음'을 나타내며, '吃不了'의 뒤에 '多久, 几年'과 같은 막연한 시간을 취한다. 이 경우 '吃'라는 동작 자체가 이루어지고, 다 먹어 없애는 동작의 결과까지 도출되거나 추측이 되지만, 뒤에 이어지는 시간을 채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不了(liǎo)'가 사용되어 '얼마(동안밖에) 먹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두 문장의 경우는 '동작 미완료'나 '동작 실행의 불가능'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예로 판단되어 따로 구분을 하였으나 그 예가 극히 드물어 차후 예문의 보충 수집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吃不了' 검색을 통해 다수 출현했던 '吃不了' 구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 吃不了兜着走

'吃不了兜着走'는 '다 먹을 수 없어 싸 가지고 가다', '(문제가 생기면)끝까지 책임지다', '감당해 낼 수 없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이 중 '책임지다'와 '감당해 낼 수 없다'의 예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 먹을 수 없어 싸 가다'의 예문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 這件事你還是掂量着辦，否則你吃不了兜着走！

이 일을 너는 잘 따져보고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萬一將來出不了產品，我可吃不了兜着走。

만일 앞으로 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㉑ “中國人的幽默，叫你吃不了兜着走” 他瞟了瞟她。  
 “중국인의 유머를 당신은 감당할 수 없을 거요” 그는 그녀를 힐끗 보았다.
- ㉒ 企業盲目擴充隊伍，以為低成本擴張就是撿便宜，結果“吃不了兜着走”  
 기업은 맹목적으로 조직을 확충하고, 낮은 원가로 확장하는 것이 거저먹는 일이라 여겼지만, 결과는 ‘감당해 낼 수 없는 것’이었다.
- ㉓ “吃不了，兜着走”，上海人還為您准備了速凍點心系列和微波點心系列。  
 “다 먹지 못하겠으면 싸 가지죠.” 상해인들은 당신을 위해 냉동 간식과 전자레인지용 간식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위의 예문들은 ‘吃不了’의 대상이 음식물이든, 임무나 부담이든 모두 ‘그 양이 너무 많고, 능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전부 먹지(또는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양적 과다로 인한 동작 미완료’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b) 吃不了苦

‘吃苦(고생하다, 고통을 당하다)’에서 파생되어 나온 표현으로, ‘고생 혹은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

- ㉔ 你以為我是什么人？如果吃不了這份苦，我決不會追隨你走這么遠的路！  
 당신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만약 이 정도 고생도 견디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당신을 따라 이렇게 먼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 ㉕ 不必隱瞞，她還不能爲了愛情而嫁給一個農民；她想她一輩子吃不了那么多苦！

숨길 필요 없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농민에게 시집가지 못 한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그만한 고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위의 예문들은 '고통이 크기 때문에(외적 요인)'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양적 과다로 인한 동작 미완료'라고 할 수 있다.

(c) 吃不了亏

'吃亏(손해를 보다, 불리하다)'에서 파생되어 나온 표현으로, '손해 볼 리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

㉞ 他是个勇敢精明人, 吃不了亏。

그는 용감하고 영리한 사람이니 손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㉟ 吳師傅是徐廠長的大紅人, 跟着他你們吃不了亏。

吳師傅는 徐공장장에게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이니, 그를 따르면 너희가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문 ㉞은 동작 행위자의 능력이나 조건이 뛰어나다는 것을 전제로 '손해를 전혀 입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경우이고, 예문 ㉟은 환경적 요인(吳師傅를 따른다는 전제 조건)이 손해의 발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이들 구문 앞에 '絕對, 一定'과 같은 부사를 놓아 강조를 하기도 한다. 동작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므로 '동작 실행의 불가능'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원인은 동작 행위의 주체에 따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주관적 제약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본 장에서 살펴본 예문들을 통해 '吃不了'가 '양적인 처치 능

력의 여부' 외에 '동작 행위의 실현 가능 여부'를 나타낼 수 있으며, 문장에서의 전제 조건이 '吃不了'의 역할('동작의 미완료'인지 '동작 실행의 불가능'인지)을 구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나오는 말

'吃不了'는 사전상의 설명에 제시된 환경보다 훨씬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가 나타난다. '吃不了'를 사용한 예문 분석을 통해 '吃不了'가 사용되는 데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에 따라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吃不了'는 '了(liǎo)'가 '完畢', '結束'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작 미완료'로 쓰이는 경우와 '了(liǎo)'가 '완료'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不了' 자체로 '동작 실행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동작 미완료' 즉, '吃不完'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 사용 환경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 一. 양적 과다로 인한 동작 미완료

'다 먹지 못하다'로 해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음식물이나 임무 혹은 부담이 너무 많은 것'이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며, 많은 양의 음식물이 실제로 화자의 눈앞에 있거나, 화자가 이미 그 양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吃不了'의 앞이나 뒤에 '這麼多, 這許多, 那麼些東西' 등 '많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吃不了'의 앞에 '一時, 暫時'와 같은 시간 표현을 둬으로써 '일정 시간 내에 다 먹지 못하는 양', 즉 '상

대적으로 많은 양임을 표현하기도 한다.

## 二. 심리적·신체적 요인으로 인한 동작 미완료

'얼마 먹지 못하다'로 해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먹는 사람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나 선호도, 혹은 섭취량 등의 제약이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여 '많이 먹을 수 없음' 혹은 '얼마 먹지 못함'을 나타낸다. '吃不了'의 뒤에 '很多, 多少'와 같은 추상적인 양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一只羊羔'나 '兩口'와 같은 소량을 표현하여 '동작 행위자의 섭취량이 적어서 다 먹을 수 없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了(liǎo)'가 '완료'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不了' 자체로 '동작 실행의 불가능' 즉, '먹는 행위 자체의 불가능'을 나타낼 때의 의미는 '먹을 수 없다' 혹은 '먹지 못하다'로 같지만, 전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一. 환경적 제약

受事對象(음식물이나 임무 등)의 상태나 시간적 제약, 음식이나 임무 등을 제공받을 기회의 부재, 반드시 우선 충족되어야 할 조건의 존재 등 외부 환경에 의한 제약을 말한다. 동작 행위자의 범위 제한(예문 ⑰)이나 동작 행위의 금지(예문 ⑳)도 환경적 제약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二. 주관적 제약

동작 행위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나 능력의 부족 등 개인적 상황에 의한 제약을 말한다. 때때로 '吃不了'의 뒤에 현실성 없는 受事對象(예문 ㉔, ㉕, ㉖)을 취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외적으로 '吃不了'가 '동작 미완료'나 '동작 실행의 불가능'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吃不了’의 뒤에 ‘多久, 几年’과 같은 막연한 시간을 두어 ‘얼마동안밖에) 버티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 경우 ‘吃’라는 동작이 이루어지고, 다 먹어 없애는 동작의 결과까지 도출되거나 추측이 되지만, 그 동작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이어지는 시간을 채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不了(liǎo)’가 사용되었다.

‘吃不了’는 구조 분석에 있어서도 ‘了(liǎo)’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보아야 하는데, ‘了(liǎo)’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了(liǎo)’ 자체가 독립적인 성분, 즉 ‘完·結束’를 의미하므로 ‘吃|不|了’로 삼분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지만, ‘吃不了’의 ‘了(liǎo)’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을 때는 가능표시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不’와 ‘了(liǎo)’가 우선 융합을 이루어 불가능을 표시하는 하나의 어법단위를 이룬 후에, 이 ‘不了’가 다시 동사 ‘吃’와 융합하여 “吃’의 불가능’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吃|不了’의 형태로 양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가능표시의 ‘不’가 언제나 C와 먼저 조합이 된 후, 중심 술어와 제 2단계 조합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了(liǎo)’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吃|不了’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사 ‘吃’ 외에도 ‘不了’ 형식을 취하는 다른 동사, 형용사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각각의 동사,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차후에 보충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어 : ‘吃不了’, 가능보어 의미, ‘V+不了’ 형식, 가능보어 부정형



■ 참고문헌

- 邢福義, 『漢語語法三百問』, 北京, 商務印書館, 2004.
- 朱德熙, 『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2007.
- 石毓智, 『現代漢語語法系統的建立—動補結構的產生及其影響』,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5.
- 劉月華, 『實用現代漢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2007.
- 房玉清, 『實用漢語語法(修訂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
- 中國社會科學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2002年增補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2.
- 亢世勇, 劉海潤, 『新詞語大詞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3.
- 曲偉, 韓明安, 『當代漢語新詞詞典』,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4.
-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서울,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2000.
- 北京語言學院語言教學研究所, 『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
- 고후원, 「현대중국어의 「動+補」관계 I; 현행 대학교재에서 나타난 문장(어문)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第17輯, 1990.
- 이우철, 「현대중국어 “V得/不C”구조 연구」, 『中語中文學』 第27集, 2000.

〈中文摘要〉

## ‘吃不了’的意思和使用范疇

金 旼 宣

本文在前人研究的基础上，對“吃不了”的意思和使用范疇進行了分析和比較。現有的詞典對“吃不了”的解釋過於簡單，但實際上“吃不了”往往在不同的環境里表示不同的意思。“吃不了”中的“了”有時表示“完、結束”，這時“吃不了”的意思等於“吃不完”。按照前提條件，我們還可以把表示“吃不完”的“吃不了”分別翻譯成“다 먹을 수 없다(無法全吃光)”和“얼마 먹지 못하다(只能吃一點)”。翻譯成“다 먹을 수 없다(無法全吃光)”的時候，“吃不了”的前後往往出現“這麼多，這許多”等強調“數量多”的詞組，一般在施事者已經知道受事對象的數量的情況下使用這些詞組。但翻譯成“얼마 먹지 못하다(只能吃一點)”的時候，後面往往出現“很多，多少”等不確定的數量或者“一只”、“兩口”等數量詞來強調只能吃少量。

“吃不了”中的“了”不表示“完、結束”，而以整個“不了”形式作為一種語法成分的時候，“吃不了”就表示“主、客觀條件不允許吃”。這時能把“吃不了”翻譯成“먹을 수 없다(不能吃)”。“먹을 수 없다(不能吃)”的原因還可以分成兩種類型，其一，食物、任務等受事對象的狀態、時間、機會等環境條件不允許吃；其二，施事者的身體、精神上的問題以及能力不足等主觀條件不允許吃。

另外，“吃不了”後面出現‘多久，幾年’等不確定的時間時，我們還要把“吃不了”翻譯成“얼마 먹지 못하다”。不過，這時的“얼마”指的不是數量，而是時間。這個時候“吃不了”表示“能吃，而且能吃完，可是維持不了多久”。

주제어 : '吃不了'; 可能補語 意味, 'V+不了' 形式, 可能補語 否定形

